

인생은 이별연습 아닌가



도심 수랭열풍을 이르고 있는 서울 안국 선원의 흥법운영팀장 김성부(64·사진)씨. 불교계에선 '은암 거사'로 더 잘 알려진 그가 한 권의 시집을 펴냈다. 시집의 제목은 <이별연습 그리고 기다림>이다.

김씨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66년 해병대 청동부대 소대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다. 매일같이 부하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겠다는 생각에 시를 써서 신문에 발표하고 방송에서 직접 낭송하기도 했다. 제대 후 금융계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김씨는 시작(詩) 활동에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시를 지면에 발표한다거나 등단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의 시작활동이 습자노트를 벗어나 활자화된 것은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되면서부터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불자 부인의 영향으로 3년 전부터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안국선원 수불 스님에게서 은암(隱庵)이란 법명을 받았고 올 초에는 <불교문예>로 정식 등단도 했다.

"불교 공부를 하다보니 자연히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문학인은 많은데 불교문학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시를 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시집을 펴내게 됐습니다."

시집 제목과 같은 제목의 시 '이별연습 그리고 기다림'은 성지순례를 떠나는 아내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쓴 시다.

"언젠가 이별연습에 익숙해지면, 그 때는 정말 혼자 외로움에 지쳐/ 기다리는 마음이 바다 같으면 어찌할까/ 공항 쪽 산 너머 가을바람에/ 하얀 손길을 띄우고 돌아선다" (이별연습 그리고 기다림 卍)

"인생이란 어차피 이별연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는데, 그 이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이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욕심과 갈등, 분노는 비우고 그 자리에 용서와 감사, 존중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시를 배운 적 없는 김씨의 시에는 어려운 단어나 낱선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 시를 보고 '저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듯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이번 시집이 각자의 사심(私心)을 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김씨는 그동안의 습자시들을 다듬어 내년 5월쯤 두 번째 시집으로 묶는 한편 제주 안국선원 홈페이지(www.ahnkook.org)에 쓰고 있는 안국칼럼도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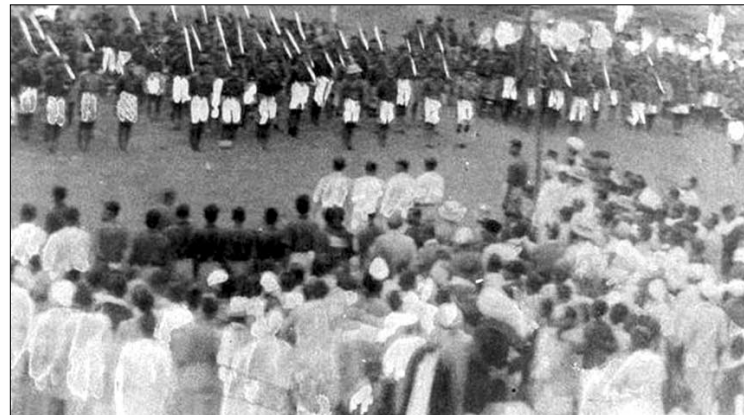


이별연습 그리고 기다림 김성부 시집 | 들꽃 | 7천원

인도 국민의 영웅 암베드카르



암베드카르 디안 찬오 이하르 지음 이명근 옮김 에피스테메 | 2만원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그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는 등 신분제 철폐에 앞장섰다.

인도 현대사의 지도자 중 인도 국민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은 누구일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간디'를 첫 손가락에 꼽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도 국민들은 '제이 브함(Jay Bhim, 암베드카르 만세)'을 외친다. 우리에게 아직 낯선 인물이지만, 암베드카르(1891~1956)는 인도 불가촉천민의 해방자이자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로 칭송받는 '영웅'이다.

최근 <암베드카르 평전> 펴낸 이 출간권데 이어 그의 일대기와 업적, 어록, 연보 등을 담은 또 다른 평전 <암베드카르>가 선보이는 등 암베드카르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의 일생을 출생, 브라만주의와의 투쟁, 원탁회의, 종교의 탐색과 민중을 위한 불 법이라는 큰 큰호를 나눈 이 책에서는 그의 사상과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먼저 그의 일대기를 간략히 살펴보자.

암베드카르는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 하층 계급인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났다. 친구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고, 교사들은 부정 타는 것이 두려워 그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멸시에서 시달리던 암베드카르는 노예제도인 카스트를 타파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천민 출신으로 힌두교 버리고 불교에 의지해

'신분제 철폐'에 일생 바친 불꽃같은 삶 조영

매일 새벽 두시에 일어나 공부에 매진했다. 1907년 대학에 입학한 그는 이후 주위의 도움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고국에 돌아와 교수와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동료 교수들은 그가 교수 휴게실에 놓인 주전자의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신분 차별은 계속됐다.

교수직을 사임하고 다시 영국으로 건너간 그는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1927년 '초다르 저서지' 사건으로 불가촉천민 해방운동의 신호탄을 쏘았다. 이는 상위 카스트 주민들이 불가촉천민의 초다르 저서지 사용을 반대한 것에 저항한 사건으로, 암베드카르를 비롯한 만여 명의 군중은 저서지까지 행진하고 '금지된 저서지'의 물을 떠 마시도록 자선들의 권리를 행사했다.

이후 그는 법무장관과 노동장관을 역임하며 불가촉천민을 위한 정당을 창당했고, 그들의 의회진출을 법제화하는 등 신분제 철폐를 위해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힌두교 아래에서 신분제를 타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935년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지만, 힌두교인으로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선언한다. 그리고 그가 대안으로 찾은 가르침은 바로 불교였다.

"프라즈나(지혜)와 카루나(사랑) 그리고 사마타(평등)가 절묘한 조합을 이루고 있기에 저는 불교를 사랑합니다. 이 원리들은 선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는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와 저술을 이어갔으며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50여 만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불교로 개종함으로써, 사그라져가던 인도 불교에 불을 지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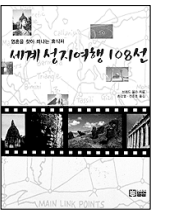
책에서는 암베드카르의 일대기를 짚어가는 한편 인도의 성자로 여겨지는 간디와의 사상 대립을 조망하는데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다. 신분제의 완전철폐를 주장했던 암베드카르와 달리 간디는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려 여겼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불가촉천민의 의회진출과 차별근절 등의 문제에 있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암베드카르의 삶에서 오늘날 지도자의 모습을 반추해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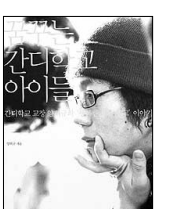
■ <세계 성지여행 108선> (브래드 올슨 지음, 최경일·전준호 옮김, 밀알, 1만2천원) = 티베트 남서부 마나사르와르호(湖) 북쪽에 위치한 카일라스산. 티베트 불자들은 '세계의 배꼽'이라 불리는 이곳을 108번 순례하면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성지(聖地)의 힘이다. 여행전문가 브래드 올슨은 세계의 성지 108곳을 직접 그린 지도와 삽화를 이용해 소개한다. 인도의 갠지스강과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 일본의 고야산 등 불교 성지들에 관한 내용도 풍부하다.



■ <아름다운 가치사전> (채인선 글/김은정 그림, 한울림어린이, 1만2천원) = 믿을 보람 사랑 약속 인내 존중 관용... 어느 사이엔가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먼 '박제된' 단어가 되어버린 말들이다. 이 단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승이란, 나도 알고 있지만 친구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것. 후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르니까." <아름다운 가치사전>에 등장하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쉽게 책을 덮지 마자. 단어가 의미하는 새로운 뜻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 <꿈꾸는 간디학교 아이들> (양희규 지음, 가야넷, 9천5백원) = "교육이란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국내 최초의 비인간 말들이다. 이 단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승이란, 나도 알고 있지만 친구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것. 후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르니까." <아름다운 가치사전>에 등장하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쉽게 책을 덮지 마자. 단어가 의미하는 새로운 뜻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 <내 체질에 악이 되는 음식 222가지> (김달래 지음, 중앙생활사, 1만3천9백원) = 감자, 두부, 김치, 달걀 등 거의 매일이 다지고 먹는 음식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체질과 건강에 대해 연구해 온 김달래 교수(삼지대 한의학과, 사상체질학회회장)는 음식이 자신의 체질에 얼마나 맞는지 살펴볼 것을 권한다. 일례로 건강식으로 알려진 두부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거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禪師)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승'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럽워 조석(朝夕)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苦行)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화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法報)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부처님은 왜 새벽 2시에 일어났을까

사찰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면 제일 당혹스러운 것이 취침, 기상 시간일 것이다. 도시인들은 초저녁인 9시에 잠들기도 힘들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은 더욱 힘들다. 왜 스님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생활을 할까? 해답은 부처님이 생전에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두시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했고, 3시부터 한 시간 가량 다시 잠을 잤다.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증생(正生)을 위한 설법(說法)에 보냈다.

머지 시간은 온전히 증생(正生)을 위한 설법(說法)에 보냈다.

<불교풍속고금기>는 이 같은 불교의 풍속(風俗)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책이다. 지은 이는 식복과 양치(양치) 예복 수계(受戒) 공양(供養) 바느질(針黹) 등 50가지 주제를 수행(修行)과 일상생활(日常生活), 의식(儀式), 대중생활(大眾生活), 세시풍속(歲時風俗)으로 나눠 설명한다. 각 풍속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짚어



불교풍속고금기 박부영 지음 | 은행나무 | 1만3천원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경의 체증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繼承)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일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수락산 호랑이, 보각스님 자서전

스님, 바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화제의 신간!

이 책에는 반세기를 승려로 살아오면서 경험해야 했던 보람과 난관, 소신과 좌절, 그리고 갖은 어려움 속에서 수행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한 노비구니의 삶의 편린들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문장이나 특별한 기교는 없어도, 잔잔하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적은 것이 어찌 보면 자신의 수행담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오늘의 세태를 후일에 증언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자신이 신세진 모든 이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월운스님 추천사-

정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수선한 시절에 출가해 강원의 학인으로 선방의 남자로 지내던 시절 이야기들, 은사 상인스님과 효봉·동산·경봉·법회·윤허·성철스님 등 당대를 호령했던 선지식들과의 인연담, 폐허가 된 수락산 석림사를 30년에 걸쳐 중창한 눈물겨운 스토리, 그런 외중에도 아이들과 노인들 20여 명을 보살피며 자비를 실천하는 이야기며, 여성의 입장에서 불교계의 오랜 관습인 남녀차별을 질타하는 일침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법보신문

◆ 8월 5일(음력 7월 1일) 오전 10시에 수락산 석림사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습니다. (전화 031-873-6516)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시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백중기도 · 천도의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 **영가천도** 우룡큰스님 지음 / 4x6판 / 값 4,0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였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독경·사경의 천도, 49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궁금증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4,000원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지장보살 본원경 (부록-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 그리고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성큰스님 법문집” 마음발을 가꾸는 불자**

간절히 남을 따라 찾지 마라
점점 나하고 멀어진다
지금 내가 스스로 가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구나

· 천도제 및 백중 기도법을 비롯하여
· 기도성취의 기본원리와 참회법
· 부처님께서 오신 뜻, 불자의 길
· 내가 나를 다듬는 방법
· 주인 노릇하며 사는 법
·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
· 생활 속의 불교수행법
· 업장을 녹이는 공부 등에 대해
· 큰스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 심도있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보성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 **독서출판 요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